

# 코로나19 시기의 중국 리스업 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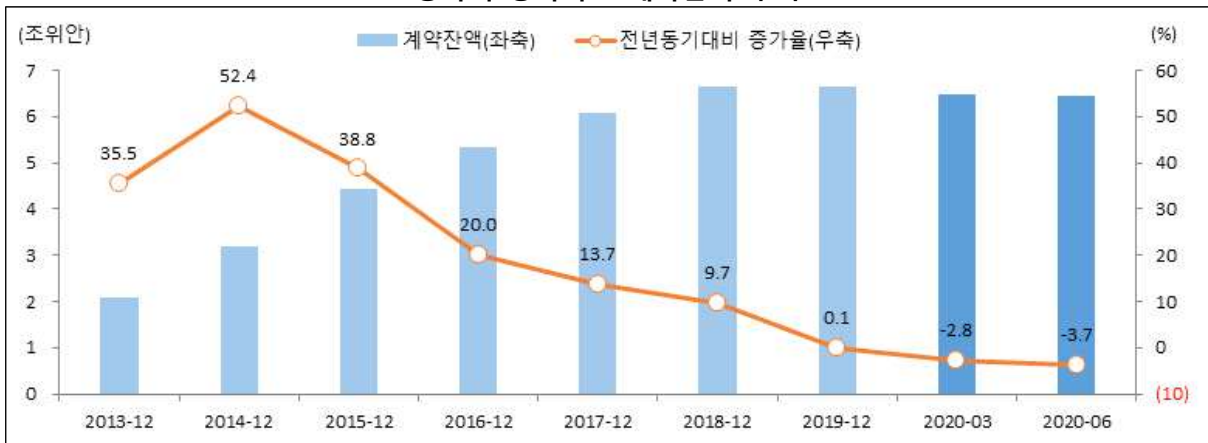
- ◆ 중국의 리스업계는 설비투자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성장 정체 국면에 진입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 특히 은행계 금융리스사는 주요 사업 영역이 항공기, 선박 등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나 은행권의 리스업 진출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
- ◆ 최근 중국 정부의 감독 강화는 리스업계가 설비 수요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이며 리스업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 □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이 집중된 '20년 상반기 중국의 용자리스\* 계약잔액은 '19년말 대비 감소

\*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Financial Leasing)를 뜻하는 중국식 용어. 용자리스회사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리스사와 그 외 로컬자본으로 운영되는 내자용자리스사, 외자가 참여하는 외자용자리스사로 구성. 금융리스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 은행간 대출 등이 허용되는 대신 엄격한 감독기준 적용

- 중국의 '20.2분기 용자리스 계약잔액은 6.46조위안(약 1,10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3.0%, 전년동기대비로는 △3.7% 기록
  - 연간 계약잔액 증가율은 '18년 9.7%에서 '19년 0.1%로 대폭 둔화되던 상황
- 동기간 위안화 은행대출 잔액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7.9%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

중국의 용자리스 계약잔액 추이



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WIND

□ 장기화되는 설비투자 침체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리스업은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 코로나19 등에 따른 설비투자 침체가 리스 계약 규모에 고스란히 반영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yoy)은 '19년 연간 5.4%에서 '20년 상반기 △3.1%로 하락
    - 특히 설비투자는 '19.1분기에 이미 감소세로 전환하여 '19년 연간 △0.9%, '20년 상반기 △13.9%를 기록
    - 용자리스업 계약잔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19.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으로 감소
- 또한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항공, 조선 등 경기민감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에 직접 노출

중국 주요 은행계 금융리스사의 자산 비중 TOP 3 분야 및 비중

(단위 : %)

회사명	1순위		2순위		3순위	
교은리스	항공기	25.2	공공사업	22.5	에너지설비	19.8
국은리스	인프라건설	42.7	항공기	36.6	선박, 상용차, 기계	13.3
민생리스	대형 설비	48.0	선박	26.0	항공기	21.4
초은리스	설비	61.0	항공	19.7	선박수송	19.3
건신리스	도로운송	24.9	항공	22.7	철강, 석탄	14.7
흥업리스	민생사업	40.7	그린(친환경)	36.8	에너지, 화공	10.7

자료 : Fitch Bohua

□ 한편 '18년 용자리스업 관리감독 일원화\*를 기점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 '18.4.20일 이전까지는 금융리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담당하고, 여타 내자리스사와 외자리스사는 상무부가 관할해왔으나 4.20일을 기점으로 내자, 외자리스사를 비롯해 팩토링, 전당포 등의 관리감독 주체를 은보감회로 일원화
- 중앙정부는 리스업의 본질이 실물경제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위탁대출, 팩토링 (매출채권 매입을 통한 자금 공급) 등 본업이 아닌 업무 비중을 낮추도록 압박
  - '20.7월 발표한 <용자리스사 감독관리잠정방안>은 리스자산이 총자산의 60%를 밀돌아서는 안 되고, 채권투자가 순자산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베이징 등의 지방 금융감독당국은 '18년부터 자료 대조, 현장실사 등을 통해 비정상적 경영 상태에 있는 업체 정리작업 실시
  - 전국용자리스기업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6월 기준 전체 용자리스사 (금융리스사 제외) 중 72%는 실체가 없는 'Shell Company'이거나 휴업상태

- 또한 금융당국은 중소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개발은행, 교통은행, 농촌은행 등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 \* 리스 대상 물건 부적합, 지방정부 및 관련 용자플랫폼에 대한 위법적인 자금 제공, 자산건전성 기준 엄중 위반, 리스자금 용도 및 리스 후 관리감독 미흡, 내부거래 위반 등이 주요 사유
- '19년 전체 70개 금융리스사 중 12개 업체가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

최근 중국의 리스업 관련 정책 동향

발표 시기	주관 부문	정책 문건명	개요/비고
'18.5.14	상무부	용자리스사, 팩토링회사, 전당포의 관리책임 조정 사항에 관한 통지	모든 용자리스사 관리감독 주체를 은보감회로 일원화. 이후 은보감회는 非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자, 외자 리스사의 일상적 감독권을 지방금융감독관리국에 위탁
'20.4.7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시 용자리스사 감독관리지침(시범시행)	수신 및 대출금지를 비롯한 11개 네거티브 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0.6.9	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용자리스사 감독관리 잠정방안	용자리스업의 본질이 '자금의 융통'보다 '물자의 융통'에 있다고 강조하고, 위탁대출, 팩토링 업무 등을 제한
'20.7.3	은행보험감독관리 위원회	금융리스사 감독관리 등급평가방법(시범시행)	등급평가(총 5등급, 7단계) 요소와 방법, 등급별 감독관리 강도 차별화 등 명시

자료 : KDB미래전략연구소 정리

□ 은행권은 실물경기 부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에도 리스업 진출을 계속 시도

- 설비투자 침체, 당국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리스회사 수는 '17년 69개에서 '20.1분기까지 70개\*로 정체
  - \* 이 중 45개는 은행이 지배주주이거나 지분을 보유한 은행계 리스사
- 중국의 자산규모 1위 리스사인 ICBC 금융리스의 '19년 총자산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2,710억위안(약 46.2조원)을 기록
- 그러나 은행권의 금융리스사 설립 시도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지속
  - 중국은행은 '20.4월 은보감회로부터 중은금융리스회사 설립을 비준받고 불과 2개월만인 지난 6월에 정식으로 개업
    - 전체 등록 자본 108억위안(약 1.8조억원) 중 100억위안을 중국은행이 출자
  - 그 밖에 광발(廣發)은행과 강음(江陰)농촌상업은행, 청도(靑島)농촌상업은행, 성도(成都)은행 등이 은보감회에 설립 계획을 제출하고 비준 대기 중

최근 3년간 중국의 리스사 유형별 동향

(단위 : 개, 억위안)

항목	연도	금융 리스사	용자리스사	
			내자	외자
기업수	'17	69	276	8,745
	'18	69	397	11,311
	'19	70	403	11,657
	'20.1Q	70	406	11,669
기업당 평균 계약잔액	'17	330.4	68.1	2.2
	'18	362.3	52.4	1.8
	'19	357.6	51.6	1.8
	'20.1Q	357.6	49.7	1.7

자료 : 중국리스업연맹, WIND

중국의 총자산 Top10 리스사

(단위 : 억위안)

업체명	유형	총자산	순이익
工銀(ICBC)	금융	2,710	34.36
渤海(BOHAI)	내자	2,655	18.48
國銀(CDB)	금융	2,613	29.38
遠東(FAR EAST)	외자	2,606	48.28
平安(PINGAN)	외자	2,546	44.76
交銀(BOCOM)	금융	2,531	30.21
招銀(CMB)	금융	1,887	25.01
民生(CMBC)	금융	1,877	-
中航國際(AVIC)	내자	1,488	17.11
中銀航空(BOC AVIATION)	외자	1,401	49.69

주 : '19년 기준

자료 : 零壹财经(링이차이징)

- 이는 은행권이 여전히 리스업을 사업 다각화 분야로서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
  - 대형은행과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의 수익성은 비슷한 수준이나 부실비율은 리스사가 은행보다 양호
    - 전국 규모 15개 상장은행의 '19년 자본수익률(ROE)은 11.07%, 대형은행 산하 11개 금융리스사의 ROE는 10.02%(Golden Credit Rating, WIND 등 참고)
    - 부실비율은 '18년 기준 상장은행이 1.51%, 대형은행 산하 금융리스사는 1.22%

□ 중국 정부는 시장 질서를 정돈해나가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리스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

-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실물경기 하강 방어 등에서의 리스업 역할을 계속 중시하며 이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견지
  - '20.7월 발표한 <용자리스사 감독관리잠정방안>에 용자리스회사가 장비제조업 발전,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설비 수출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명시
  - 국무원은 지난 7월 15일 상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설비 용자리스 분야 진출을 장려할 것임을 재천명
- 한편 중국 리스업계는 코로나 시기에 항공, 조선 등 기간산업의 위기를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 수행 중
  - \* Clarksons에 따르면, 20년 1~5월 기준 리스사의 신규 선박 투자액은 14억달러로 중국 전체 투자액의 40%를 차지. 이에 힘입어 중국의 동 분야 세계 순위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상승